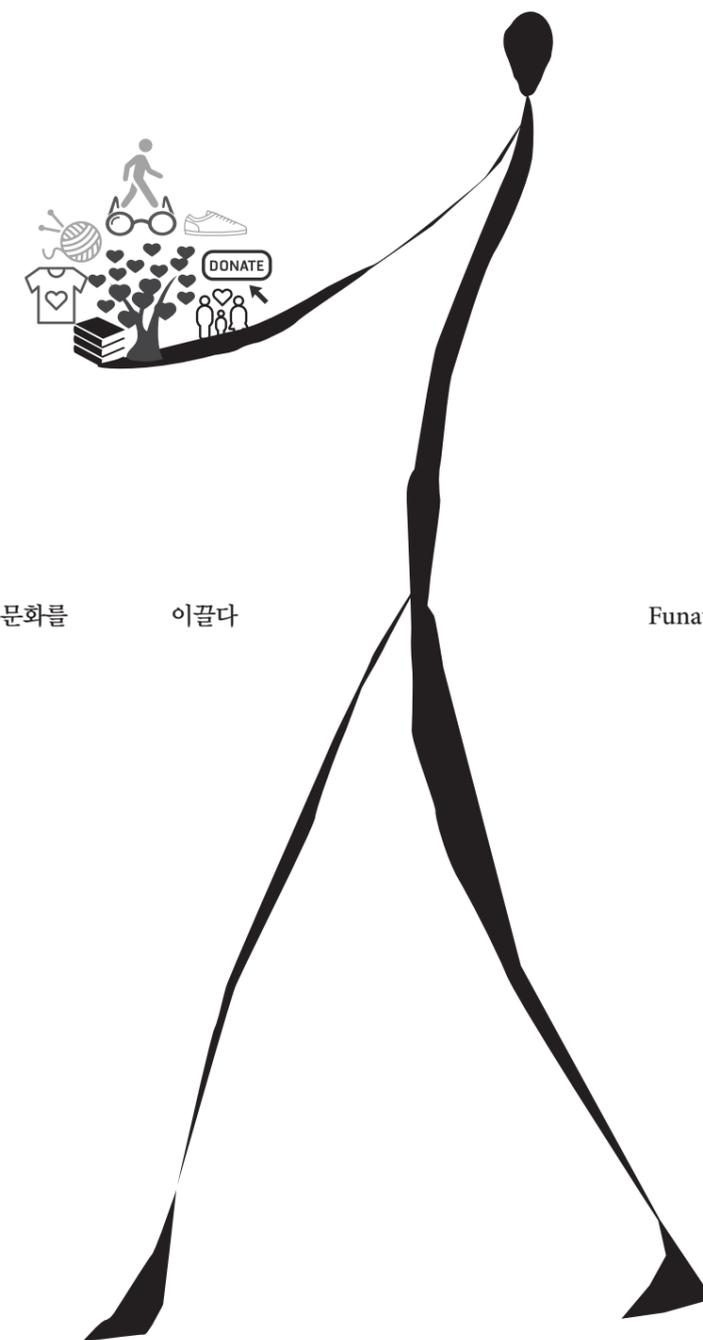


서울인 세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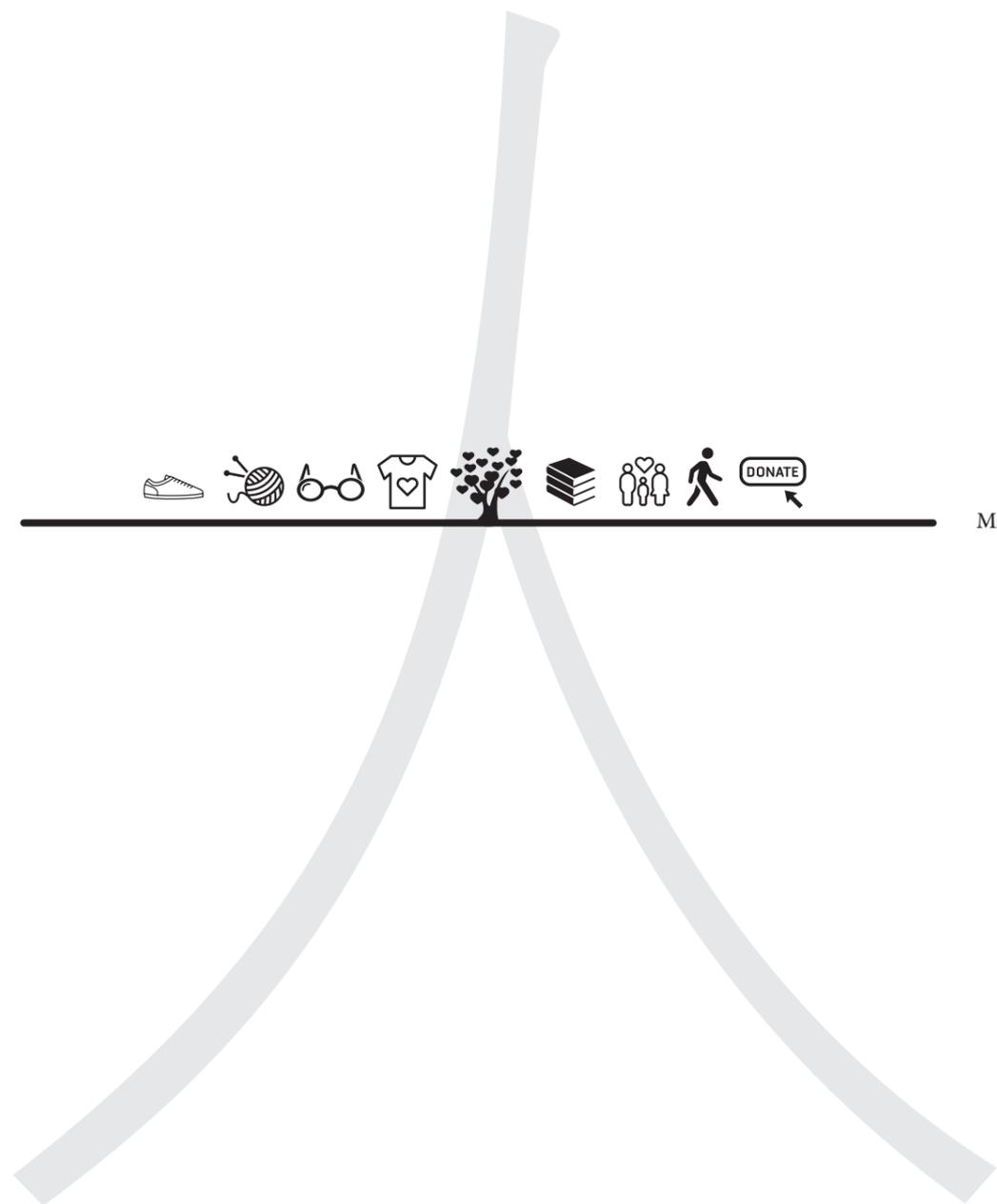
UOS Newsletter
2016 | Autumn/Winter | No.74



착한 기부문화를 이끈다 Funation, Cause Marketing

서울인 세계인
2016 | Autumn/Winter | No.74

UNIVERSITY OF SEOUL



Join in all

Make a good donation

Contents

시대 3.0

COVER STORY

퍼네이션(FUNATION)과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

기부는 문화다. 특정한 사람들만 행하는 특별한 것이 아닌, 누구나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개인의 소비 활동이 기부로 이어지고, 게임을 하고 걸음을 걷는 일상이 온정의 손길로 이어지는 착한기부.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

UOS Newsletter

서울인 세계인

2016 | Autumn/Winter | No.74

발행인 원윤희 총장

편집인 안성제 기획처장

발행처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홍보·대외협력팀

기획·디자인 나로네트웍스 주식회사

사진 FACE STUDIO

인쇄 에스앤에스 인쇄

발행 2017. 1. 5

시대 Open



04 Intro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기부

06 Theme Column

즐기면서 기부한다!

기부에 아이디어를 더한 퍼네이션과 코즈마케팅

시대 Opinion



10 UOS Scene

문학으로 관통하는 서울의 어제와 오늘

12 In UOS

진정한 '영향력 1위'로 올라선 물리학과와 기적

16 UOS People 1

2016 레드닷 어워드 워너, 김지원(산업디자인학과 3년)

18 UOS People 2

미국전기전자학회 학생회원 펠로십 수상,
이준수(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20 Ing.

도시영화제 총장상 수상, 추병진(도시사회학과 3년)

22 UOS News

교내 소식·교수 동정·글로벌 소식

시대 On



31 Donation News

발전기금 소식

32 Donation Story

박병수 동문(조경 79)

34 Thanks to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학생들이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36 Donation List

발전기금 약정명단

41 발전기금 약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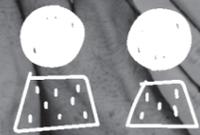
즐기다, 나누다, 커지다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기부

Funation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이 생기고
게임 속 퀴즈를 풀 때마다 쌀알이 적립되며
신발을 한 켤레 살 때마다 다른 한 켤레가 전달되는
생활 속 소소한 나눔활동.

기부를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내놓거나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이 기부가 되는 작은 습관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즐거운 기부만이 가진 특권이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듯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시에 기부를 실천하며
나아가 금전적 부담 없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퍼네이션(Funation).
즐기는 만큼 나눌 수 있고, 나누는 만큼 커지는
세상 가장 즐거운 기부활동임에 틀림없다.



VOLUNTEER



DON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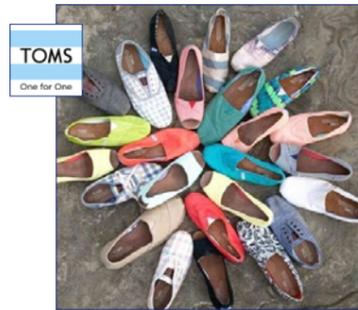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 **코즈마케팅**

최근 착한 소비 훈풍으로 기업들의 마케팅 방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코즈마케팅. 이는 대의명분을 뜻하는 'Cause'에 마케팅을 더한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에 대한 선한 명분을 제공하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단순히 마케팅의 개념을 넘어서 기업은 매출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하며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즈마케팅은 최근 들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패션과 화장품, 식품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코즈마케팅의 최초 사례는 1984년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진행한 '자유의 여신상 복원 프로젝트'다. 이들은 고객들이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1센트씩, 신규로 가입할 때마다 1달러를 자유의 여신상 재단에 기부하여 복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17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28%에 달하는 수익률 증가를 이뤘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 코즈마케팅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동참하고 있을까.

- **탐스**  :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코즈마케팅 사례가 바로 탐스의 'One for One'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나 안경 하나를 구입하면 빈곤국가의 아동들에게 신발이나 안경 한 켤레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서, 탐스 브랜드의 오랜 모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전달된 신발만 1,000만 켤레, 안경은 17,5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이쯤 되면 기부를 위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 **할리스커피**  : 국내 커피전문점인 이곳은 지난 2014년부터 국제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인증마크가 있는 원두만 사용하며 자연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돕고 있다. 할리스커피 열대우림연맹인증(RFA) 원두 소비량은 매년 월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모닝글로리**  : 종합 디자인문구 기업 모닝글로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우리 땅 독도를 알리고자 '독도지우개' 3종을 출시, 지난 1년 동안 판매된 '독도지우개' 수익금의 50%인 783만 원을 독도사랑운동본부에 독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현재 220만 개 판매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독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올리브영**  : 개발도상국 여성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샤인 브라이트 다이어리' 키트를 출시, 5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선착순 증정하여 다이어리 1권당 1,000원씩 최대 2억 원을 유네스코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남산공원 N서울타워 광장에 7m 높이의 '샤이닝 트리'를 설치하고 트리 앞에 있는 키오스크를 터치하면 1회마다 100원의 기금이 유네스코 소녀교육 캠페인에 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에 재미 요소를 더해 부담 없이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퍼네이션, 마케팅에 기부 개념을 더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코즈마케팅.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가 기부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착한 기부문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욱 다양한 방법의 기부가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따뜻한 재능기부활동 엿보기

기부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자신이 가진 소소한 재능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재능 기부' 역시 새로운 기부 트렌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어떠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으로 안전교육을!
봉사동아리 'YES UOS'

봉사동아리 'YES UOS'는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행,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쉬운 인형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이어간다. 벌써 100군데가 넘는 유치원에서 인형극 공연을 했으며, 올해만 44회 진행했다고 하니 일주일에 한 곳은 들른 셈이다. 방학 중에는 공주, 안산 등 지방에 있는 유치원도 방문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따뜻한 청년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둘

'내 손 안의 시립대' VR 서비스 구현
IT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의실 빌리기' 메뉴를 클릭하면 '가상현실(VR)로 펼쳐진 대학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빌리려는 강의실을 클릭하면 내부 모습이 3차원으로 펼쳐지고, 의자의 개수 및 빔프로젝터 설치 유무 또한 손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우리 대학 IT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이 개발한 '내 손 안의 시립대' 서비스 덕분이다.

'내 손 안의 시립대'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IT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의 회원인 장원석(수학 4년)·김도겸(건축 3년)·류진호(컴과 3년) 학생이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 만들어 학교에 기부한 것이다. 이들은 방학 기간 내내 교내 주요 강의실과 스타디움, 체육시설 등 90곳과 캠퍼스 곳곳을 VR 사진기로 찍어 '온라인 캠퍼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스마트한 재능기부 덕분에 교내 강의실을 빌리려는 많은 학생들의 불편함은 단번에 해소됐다. 자신들의 재능을 공공의 편익을 위해 기부한 이들의 노력이 바른 기부활동의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VR캡처_시작화면



▲ VR캡처_법학관 대강의실

문학으로 관통하는 서울의 어제와 오늘

소설 속 서울 들여다보기



문학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소설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닌, 역사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일상의 이야기와 인간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시대상을 가장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장르다. 굵직한 역사적 사실관계 속 시대의 진면목이 살아 숨 쉬는 장르 소설. 그렇다면 이 소설 속에서 '서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소설 몇 작품을 통해 그 안에서 묘사되는 서울의 일상적 단면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1930년대 청계천 일대 서민들의 삶은 담은 '천변풍경'

흔히 소설이라고 하면 기승전결이 있는 전개와 중심이 되는 인물 등 하나의 각 잡힌 이야기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란 본디 현실을 모티브로 하는 것인 만큼 어쩌면 별다를 거 없는 우리네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소설가 박태원의 작품 '천변풍경'처럼 말이다.

1936년~37년에 월간 <조광>에 두 차례에 걸쳐 연재되며 일제강점기였던 30년대 중반 서울 서민층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이 소설은 50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 그대로 청계천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들의 일상단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람둥이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가 무관심과 학대에 못 이겨 되돌아온 이쁜이, 시골에서 상경해 하루가 다르게 서울 각쟁이가 되어가는 창수 등 다양한 인물군상을 마치 다크멘터리처럼 좇고 있을 뿐 일련의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설 속 청계천은 근대와 전근대, 시골과 도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또한, 냉혹한 이익과 사람 냄새나는 인간애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기생과 카페의 여급이 나란히 활보하고 시골처럼 빨래터에서 돈을 내고 빨래를 하는 아낙들도 있다. 즉, 소설 속 청계천은 상충하는 삶의 방식이 교차 혹은 공존하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당시의 시대상과 인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배경이다. 아마도 소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계천 주변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소설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삶은 별 다를 것 없이 쭉 이어져 지금의 모습에 이르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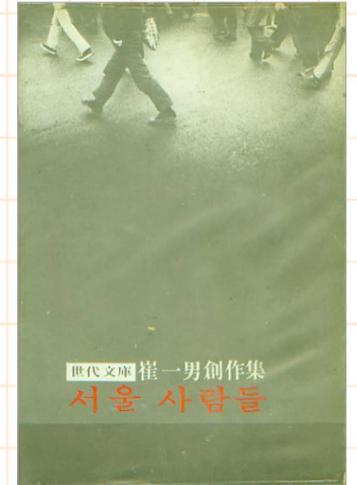


1970년대 사회상과 도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서울 사람들'

70년대 문학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도시형 소설'이었다. 급격하게 산업화·도시화되어가는 현실을 담아낸 소설들 속에서 최일남의 '서울 사람들' 역시 도시 소시민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냈다.

주인공 '나'는 현기증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고자 3명의 지인과 함께 무작정 강원도 산골로 떠난다. 이들에게는 '시골의 정취'는 '깊은 산골'과도 같다. 3박 4일 중 첫날은 김치와 우거지뿐인 밥상에도 고향의 맛을 느끼며 흥겨워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와 맥주, TV쇼를 갈망하고, 모두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도시 '서울'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한 이들은 커피숍에 들러 커피와 맥주를 마신 뒤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시민들은 문명화된 사회의 각박함 속에서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직접 겪은 자연생활의 즐거움은 한순간일 뿐 다시금 그들의 본래 도시였던 서울을 그리워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70년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도시의 냉혹함과 각박함을 느끼면서도 결국에는 '도시적인 것'들에 회귀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소설은 담담히 보여주고 있다.



SEOUL

현대 서울의 단상을 그린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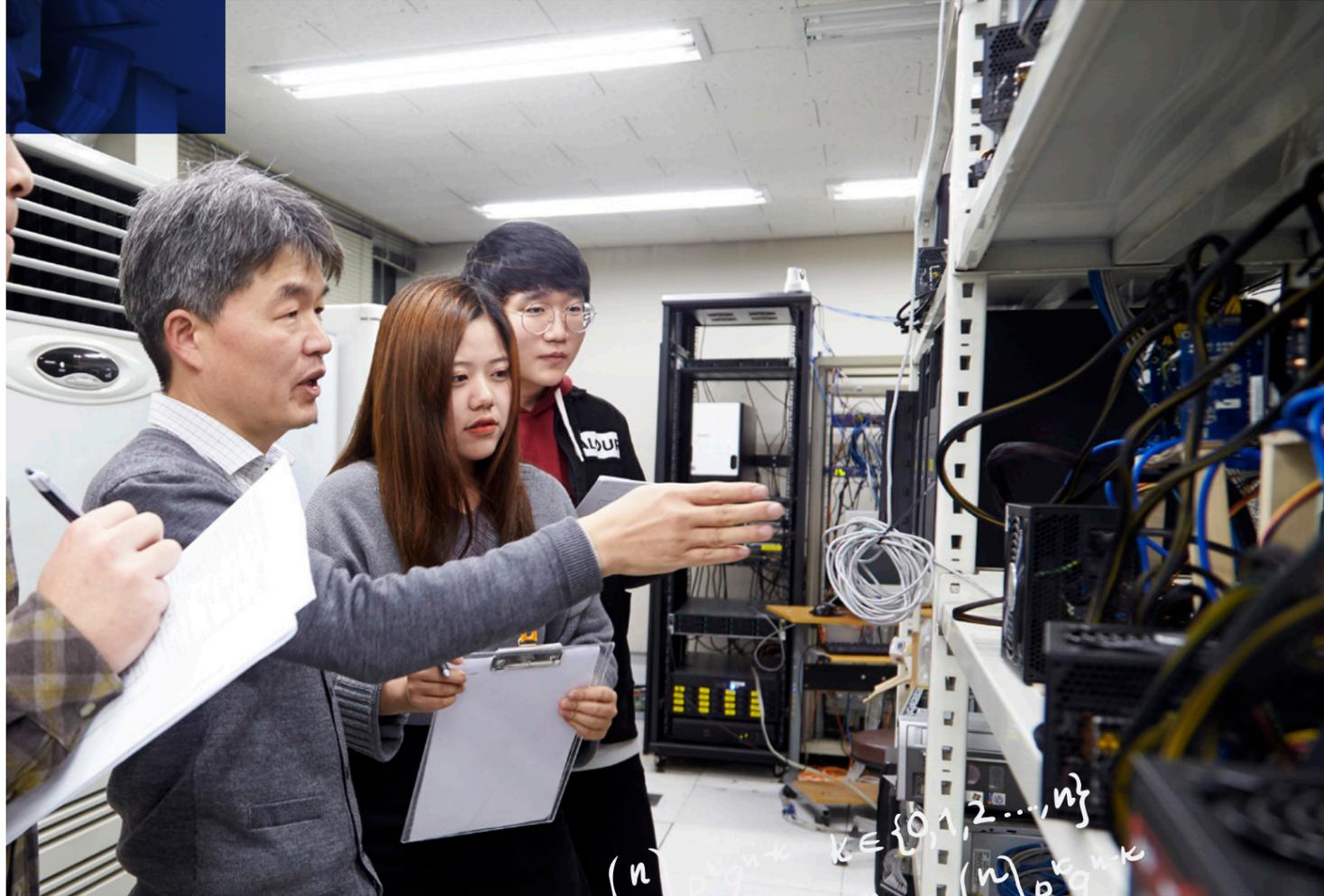
서울은 누군가에게는 고향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방인의 도시이기도 하다. 각양각색의 느낌을 간직한 서울의 모습을 여성작가 9인의 시선에서 담아낸 테마 소설집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는 각기 다른 서울의 곳곳의 풍경을 각자의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혜경, 하성란, 권여선, 김숨, 강영숙, 이신조, 윤성희, 편혜영, 김애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작가 9인은 실제적인 삶의 배경이자 욕망이 응축된 도시, 서울의 모습을 소설로 그려냈다. 무어라 규정하기 힘든 일상의 공간이자, 생경한 풍경에서 점차 익숙한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일상단상 역시 되돌아볼 수 있다.

하성란의 소설 <1968년의 만우절>은 1960년대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에게 필요했던 사랑의 기술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편혜영의 소설 <크림색 소파의 방>은 진입을 거부하는 완강한 도시로서의 서울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이야기들 역시 흥미롭다. 북촌, 망원동 다세대주택, 한강변 오피스텔, 강북강변도로, 한강 밤섬 등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은 서울의 모습을 냉혹하리만치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 개개인의 개성적 시선과 목소리를 담은 소설집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를 통해 서울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



물리학과



진정한 '영향력 1위'로 올라선 물리학과의 기적

논문 1편당 인용지수 및 영향력 지수 1위를 차지한 물리학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 수에 대한 물리학적 접근으로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은 이가 있다. 바로 우리 대학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다. 역사적인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모인 인원수에 대해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추산 인원이 5배나 다른 차이를 보였는데, 박 교수는 물리학에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코딩, 캔들 카운터(CandleCounter.C)를 더해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과학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지성이 빛나던 순간이다. 얼마 전 한국물리학회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데 이어 진정한 지성 교육으로 또다시 주목 받고 있는 우리 대학 물리학과. 노재동 물리학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P(X = k) = \binom{n}{k} p^k q^{n-k}$$

$$E(X) = \sum_{k=0}^n k \times P(X = k) = \sum_{k=0}^n k \times \binom{n}{k} p^k q^{n-k}$$

$$= \sum_{k=1}^n k \times \frac{n!}{k!(n-k)!} p^k q^{n-k} = \sum_{k=1}^n k \times \frac{n!}{(n-k)!k!} p^k q^{n-k}$$

$$= np \sum_{k=1}^n \binom{n-1}{k-1} p^{k-1} q^{n-k} = np \sum_{i=0}^{n-1} \binom{n-1}{i} p^i q^{n-1-i} = np \times 1 = np$$

논문 1편당 인용지수 및 영향력 지수 1위

기관명	총 논문 수	인용횟수	논문당 인용지수	영향력지수
서울시립대학교	938	15,577	16.6	2.37
전남대학교	1,899	24,734	13	1.84
성균관대학교	3,895	46,389	11.9	1.97
세종대학교	925	10,886	11.8	1.8
이화여자대학교	922	10,709	11.6	1.65
고려대학교	3,953	39,619	10	1.68
경북대학교	2,640	26,474	10	1.47
서울대학교	5,772	52,712	9.1	1.52
건국대학교	996	9,034	9.1	1.47
KAIST	4,137	36,090	8.7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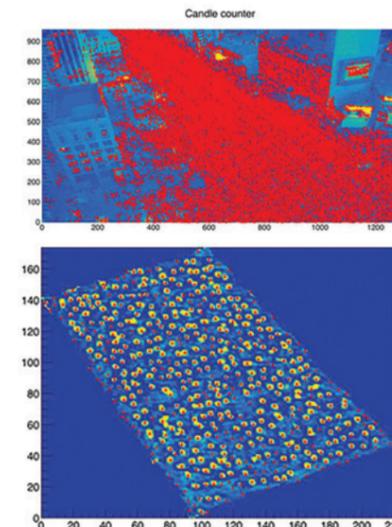
▲ 논문 1편당 인용지수 및 영향력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물리학과

한 마디로 놀랍다. 짧은 역사가 무색하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는 1992년 승인, 1993년 개설되어 지속해서 추진해온 특성화 전략과 최고의 인프라, 창의적인 연구 문화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물리학회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리 대학 물리학과는 우수 대학교를 모두 제치고 국내 대학 중 논문당 인용지수 및 영향력 지수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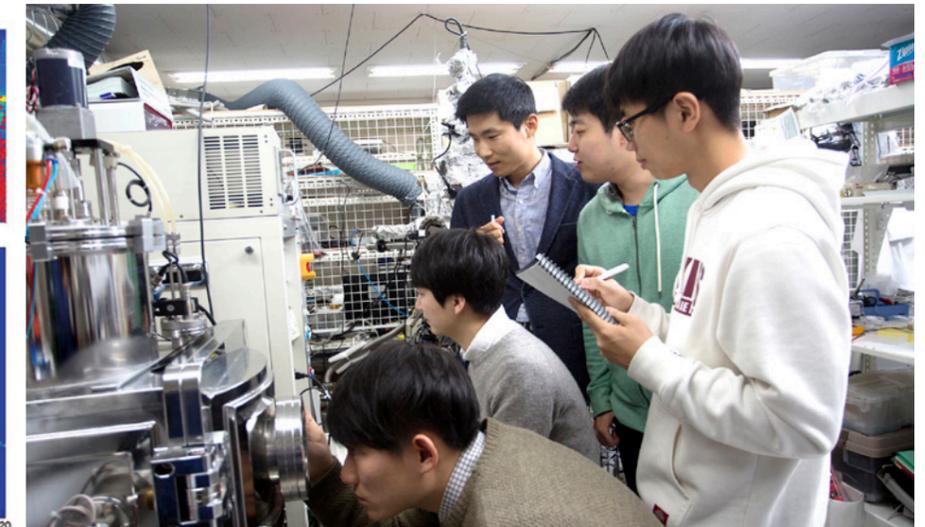
“논문 한 편당 16.6회 인용”, “압도적 국내 대학 1위!” 학술 연구의 결과는 학술지에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논문당 인용지수는 한 편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논문이 담고 있는 연구 결과의 중요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영향력 지수는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학술지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총횟수를 해당 학술지에 2년간 발표된 총 논문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학술적 영향력이 높은 논문을 더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수치가 물리학과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우수한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으며 학술 가치 또한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 노재동 학과장은 물리학과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정량적인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질적 우수성에서 앞서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 CandleCounter.C



▲ 물리학과 스마트박실습실에서 진공박막증착기의 그래핀 같은 이차원 반도체가 증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장연동 교수(가운데)와 학생들



▲ 교수와 학생의 꿈이 공존하는 물리학과 연구실

특성화 전략으로 이룬 눈부신 성과

이러한 성과 뒤에는 개설 초기부터 추진해온 '특성화 전략'이 있다.

"비교적 뒤늦은 출발을 한 우리 대학 물리학과가 꺼낸 해답은 계산물리 분야 특성화였습니다."

노재동 물리학과장은 초기 교수진과 대학이 모두 나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지금의 성과가 그러한 노력 덕분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과거 계산물리는 물리학 연구의 큰 줄기인 이론 물리와 실험 물리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다. 급부상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산물리 교육이 시급했다. 물리학과는 학과 창설 이래 물리학 교육에 있어 컴퓨터 활용을 강조해 왔다. '물리와 컴퓨터', '전산물리', '비주얼 물리' 등 교과목을 개발해 왔고, 2013년에는 '물리와 수치해석'이라는 융복합교과목도 신설했다. 또한, 전임교원들의 계산물리 분야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어 다양한 계산물리적 기법을 교육해 왔고 성공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여 배출해내고 있다. 현재 물리학과 전임교원은 14명, 초빙교수는 1명으로 교수 당 학생 비율이 1:2다. 교육의 질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폭적 지원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를 이야기할 때 '슈퍼컴퓨터'를 빼놓을 수 없다. 국내 대학 물리학과가 보유한 슈퍼컴퓨터 중 가장 큰 규모로, HPC(High-Performance Computing)라 하는데 말 그대로 고성능 연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초고성능 컴퓨터이다. 물리학과가 보유한 슈퍼컴퓨터는 희스 입자를 발견한 유럽 원자핵공동연구소 CERN(씨)의 거대강입자가속기와 초당 100억 기 비트로 연결되는 최첨단 장비다. 분



▲ 물리학과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노재동 물리학과장

자동역학(Molecular Dynamics)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물질 구조 계산, CERN에서 행해지는 고에너지 입자 충돌 실험에 대한 물리학적 모델 시뮬레이션에 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가.

"일반 가정용 PC 하나로 분석하려면 12시간이 넘는 작업을 슈퍼컴퓨터는 병렬화 작업을 통해 10분 이내로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연구의 생명이고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물리학과는 국제공동연구, 슈퍼컴퓨터 등 대학의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2014년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선정으로 연간 3억, 5년간 15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임교원 1인당 자체연구비 부문 전국 4위(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전국 7위, 유지취업을 전국 1위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학문에서도 세상에서도 코어(CORE)가 되라

"물리학을 공부하는 현장은 처절합니다."

노재동 학과장은 물리학이 치열하게 접근해야 할 학문임을 확실히 지적한다. 현재의 물리학은 과거 100년 동안 축적된 지식 위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 물리학과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학부과정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도리어 물리학과에게 1등이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질적인 면에서 연구 분야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연구에 끊임없이 도전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전한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 졸업생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산 분야뿐 아니라 대학, 공기업, 국공립연구소, 심지어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계,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코어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급변하는 첨단 사회에서 물리학 분야의 연구와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물리학적 사고는 절실한 요소입니다. 그런 이유로 물리학과는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등장했던 캔들 카운터와 같이 언론에 비친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론을 적용해 보고, 짚어보는 사고가 필요하다.

"실제로 입시 면접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공식을 외워서 설명하는 이와 공식을 이해한 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이 중 누구를 선발하게 될까요?"

미래를 향해 단단한 걸음을 내딛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는 계산물리라는 큰 틀 아래 입자물리학, 응집물질 물리학, 통계물리학의 세부 연구 분야로 확장하고 각 분야 간 협조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각 분야의 연구 및 상호 협동 연구를 더욱 가속하기 위하여 계산물리 분야에 중점연구소 및 기초 연구실과 중대형 연구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속에서 국내의 계산물리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 인력을 키워갈 것이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할 날이 머지않았다.

"우리 대학은 계산물리 분야의 특성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제 막 눈에 보이는 몇몇 성과를 얻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범위가 넓은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만 나열할 수는 없지요."

노재동 학과장의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물리학과와 장점은 아직 10분의 1도 풀지 못한 것 같다. 끊임없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발전해 나가는 우리 대학 물리학과와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

우리 대학 물리학과 졸업생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산 분야뿐 아니라 대학, 공기업, 국공립연구소, 심지어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계,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코어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

산업디자인학과
김지원

따뜻한 아이디어로 세계 디자인 무대에 서다

2016 레드닷 어워드 워너 김지원(산업디자인학과 3년)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자칫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도전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청춘들이 가진 큰 특권이 아닌가 싶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16)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니터를 구현, 워너(Winner)로 선정된 우리 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김지원 학생이야말로 이러한 청춘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아이디어를 통해 세계 디자인 무대에 당당히 첫발을 들여놓은 젊은 시대인을 만나보자.



reddot

꿈의 세계무대에 다가가기까지

Q.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라는 이번 대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 공모전 수상은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기대 없이 출전한 것이기에 오히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국제공모전에 몇 차례 출품을 시도해봤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려웠습니다. 이번 수상이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한 큰 용기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Q. 이러한 국제 대회를 접하게 된 계기와 출전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도전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대학에 입학한 후, 줄곧 국제공모전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개인 작업을 해오던 중 완성도 있는 작업물이 적절한 시기에 완성되어 출품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디자인

Q. 단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디자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의 의미까지 담은 작품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블린터(BLINTOR)'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모니터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방송에 특화된 모니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장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개인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장비들은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시간 면 구성이 가능한 모니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모니터의 표면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사용자는 이를 만지며 그 형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Q. 이러한 작품을 디자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과정 역시 궁금합니다.

블린터는 삼성 디자인 멤버십의 주제였던 '개인방송을 위한 새로운 디바이스 제안'에 대한 해석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개인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감각들을 나열하고 보니 시각이 불편한 사람은 방송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구체화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고 최신 기술, 디자인 트렌드 등 많은 자료들을 접하며 아이디어를 다듬어 갔습니다.

Q. 작품을 디자인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 혹은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요? 그리고 블린터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적극 활용되었으면 하시는지요?

일단 작품이 콘셉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지인에게 이러한 제품이 구동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블린터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약자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아니라 비장애인은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Q. 어려움 속에도 작품을 완성했던 순간의 뿌듯함이나 보람이 있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그리고 만족도와는 별개로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을 출품한다는 자체가 보람된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3D 모델링부터 렌더링, 판넬 구성까지 준비하다 보니 모니터가 작아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작품을 완성하고서도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했어요.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는 저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Q. 김지원 학생을 계기로 이러한 세계 대회 출전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험자이자 수상자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디자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건 가전제품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를 새로운 상황·환경에 놓이게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도 폭넓은 경험만이 꿈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 시각장애인을도 활용 가능한 모니터 '블린터'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이준수



오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수상

미국전기전자학회 학생회원 펠로십 수상
이준수(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명인들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거친 끝에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절대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는 많은 시간과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이준수 씨 역시 1만 시간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 활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준수 씨가 '초단펄스 광섬유 레이저와 초고속 광신호처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전기전자 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 수여하는 Photonics Society 2016 Graduate Studen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이 상은 IEEE 포토닉스분과위원회에서 매년 전 세계 학생 회원 중 우수회원 10명을 선발해 수상하는 것으로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준수 씨를 포함한 7명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았다. 또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준수 씨의 지도교수인 이주한 교수 역시 2002년 같은 상을 수상했기에 더욱 의미 있다. "수상 심사를 준비하며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이주한 교수님이 받으셨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준 계기

이준수 씨의 전공 분야인 '광섬유 레이저와 초고속 광신호처리'는 미래 유망 기술 중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연속 발진 광섬유 레이저는 절단이나 용접에 사용되고 펄스 광섬유 레이저는 초미세 재료 가공이나 레이저 마킹에 사용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레이저 수술이나 피부과, 안과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소형경량이라는 점,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다는 점, 뛰어난 빔 품질 등의 장점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학과 4학년 시절 이주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이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됐다는 이준수 씨. 흥미로움에 지난 7년간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한다. "연구의 결과물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힘들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좌절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이든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연구활동에서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긴 연구 활동에 전념한 끝에 그는 총 37편의 국제저널논문과 20편의 국제학회 발표, 7건의 특허출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번 수상 역시 이러한 꾸준함과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수상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상이 앞으로의 연구 진행에 있어 큰 동기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는 '17년 2월 학위 수여식이 끝나면 세계적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삶의 방향에 큰 동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준수 씨의 다음 목표는 이제 '세계 무대'에 있다. 앞으로 그의 1만 시간이 더욱 만족할만한 성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본다.

▼ 'IEEE Photonics Conference'에서 개최된 시상식



색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조망하다

도시영화제 총장상 수상 추병진(도시사회학과 3년)



“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방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친숙하고도 익숙한 곳으로 남아 있는 ‘도시’, 대학생만의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대학생 다큐멘터리 영화제 ‘도시영화제’에서는 각양각색의 참신한 시선이 담긴 도시의 모습이 소개됐다. 특히, 다양한 우수 작품 중 총장상을 수상한 도시사회학과 추병진 학생은 점차 사라져가는 ‘헌책방’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다뤄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도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



▲ ‘책방에 말을 걸다’ 스틸컷

도시에 남아있는 아날로그 감성을 찾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 제19회 도시영화제가 롯데시네마(청량리점)에서 열렸다. 도시의 다양한 현상을 영상을 통해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우리 대학 도시사회학과 교수들이 만든 수업이 이 영화제의 시작이다. 1998년부터 매년 가을 대학 내에서 개최되었던 학과 차원의 행사가 전문 상영관까지 마련되는 현재 규모의 영화제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총장상을 수상한 추병진 학생은 작품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올해 여름, 더위와 싸워가며 만든 작품이라 그런지 더욱 애착이 가요.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헌책방을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책방에서 느꼈던 충만한 감성들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의 주제인 ‘Human in the City’를 ‘헌책에 대한 도시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로 해석한 그는 서울 및 인천, 충북 단양에 이르기까지 헌책방 3곳을 다니며 인터뷰와 함께 책방의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디지털화된 도시 속 아날로그 감성 충만한 헌책방의 이야기,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

헌책을 통해 가장 귀한 친구를 만나다

다소 포괄적인 주제 속에서 ‘헌책방’을 선택한 것은 함께 영화를 작업했던 친구와의 공통 관심사가 바로 ‘책’이었기 때문.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도 책이라는 주제와 잘 맞아떨어졌다.

“책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많이 흐려진 지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헌책방’의 시선에서 전하고 싶었어요. 도시사람들이 생각하는 헌책은 과연 어떠한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외대 앞 ‘신고서점’,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거리’, 충북 단양의 ‘새한서점’이 이번 작품의 주 배경. 헌책방을 찾아 섭외를 하고 인터뷰를 하며 풍경을 촬영하는 등의 작업 속에서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인천의 한 헌책방 앞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고 책방 앞 풍경을 촬영하는데 아빠와 3~4살쯤 돼 보이는

어린 딸이 책방에 방문했더라고요. 어린 딸은 책방을 지나쳐 아장이장 걸어가고 있었고 아빠는 책방 문 앞에 서서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뒤를 돌아 아빠에게 걸어갔고, 아이를 기다리던 아빠는 책방 문을 열어주며 아이 손을 잡고 서점 안으로 사라졌어요. 평범할 수도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왠지 모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걸음마를 막 댄 아이와 아버지가 헌책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무언가 송고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 책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을 담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죠.”

19분 8초의 상영시간에는 이러한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득하다. 담백하지만 싱겁지 않고, 간결하지만 허전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천의 헌책방 사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헌책방에서 책을 읽는 것은 가장 귀한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제가 작품 속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헌책방을 통해 도시의 단상을 조명하고자 했던 이번 작품은 만든 이에게도, 보는 이에게도 아스라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그가 앞으로도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향해 힘차게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UOS FOCUS

서울시립대, 국공립대 국가청렴도 1위

우리 대학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국·공립대학 36개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했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1만2천183명,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7천295명으로 총 1만9천47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지난해 5.88점보다 약간 상승했고, 분야별로는 계약분야 7.58점, 연구·행정분야 5.58점 등을 기록했다. 대학별 순위로는 우리 대학이 6.54점으로 1등급에 올랐다. 이어 한국해양대(6.33점), 강릉원주대(6.30점), 공주대(6.27점) 등의 대학이 2등급에 올랐다.

국공립대학 유형별 청렴도 등급표(36개)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 청렴도	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평균 5.92, 표준편차 0.32 서울시립대학교(6.54, 0.46)	평균 7.58, 표준편차 0.25	평균 5.58, 표준편차 0.37 서울시립대학교(6.27, 0.48) 공주대학교(6.15, 0.76)
1등급	(6.40점 이상)	(7.96점 이상)	(6.14점 이상)
2등급	한국해양대학교(6.33, 0.14) 강릉원주대학교(6.30, 0.04) 공주대학교(6.27, 0.54)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7, 0.01) 금오공과대학교(6.25, 0.00) 순천대학교(6.24, 0.24) 제주대학교(6.24, 0.46) 한국체육대학교(6.24, 0.90) 경남과학기술대학교(6.23, 0.06)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2, -0.05) 군산대학교(6.19, -0.03) 안동대학교(6.15, 0.08) 충북대학교(6.11, -0.13) (6.08점~6.40점 미만)	광주과학기술원(7.93, 0.31) 한국과학기술원(7.89, 0.26) 제주대학교(7.84, 0.20) 한국예술종합학교(7.81, 1.66) 한국체육대학교(7.79, 0.31) 서울시립대학교(7.78, 0.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7.77, 0.37) 금오공과대학교(7.74, 0.11) 목포해양대학교(7.73, 0.09) 한국해양대학교(7.72, 0.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7.71, 0.03)	군산대학교(6.00, 0.01) 서울과학기술대학교(6.00, 0.04) 강릉원주대학교(5.99, 0.06) 한국해양대학교(5.98, 0.05) 금오공과대학교(5.95, 0.00) 순천대학교(5.90, 0.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5.89, -0.11) 제주대학교(5.88, 0.39) 경남과학기술대학교(5.87, -0.04) 안동대학교(5.85, 0.02) 한국체육대학교(5.85, 0.99)
	(6.08점~6.40점 미만)	(7.71점~7.96점 미만)	(5.77점~6.14점 미만)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서울시립대 13위

'2016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77곳에서 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예체능의 6개 계열 중 4개 계열 이상을 갖춘 69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올해 학생의 창업·취업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비중을 높였다.

순위	대학	총점(300점)
1(1)	서울대	240
2(3)	한양대(서울)	220
3(2)	성균관대	218
4(4)	연세대(서울)	205
5(5)	고려대(안양)	203
6(7)	이화여대	188
7(8)	중앙대	181
8(11)	경희대	178
8(8)	한양대(ERICA)	178
12(6)	서강대	175
13(10)	서울시립대	172
13(16)	아주대	172
15(21)	건국대(서울)	163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서울시립대 4명, 전국 대학 중 7위

2016 사법시험 2차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분석 결과, 우리 대학은 4명으로 전국 대학 중 7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2명(1.3%)에서 4명(3.7%)으로 증가한 결과이며, 성균관대, 동국대와 공동 7위로 'Top 10' 안에 랭크되었다. 한편,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급감한 2016년 2차 합격자는 총 109명으로, 이들은 4.7대 1의 2차 경쟁률을 뚫고 영예를 안았다.

순위	대학	합격자수
1	서울대	17(15)
2	고려대	14(19)
3	연세대	11(22)
4	이화여대	10(13)
5	한양대	6(11)
6	중앙대	5(6)
	성균관대	4(9)
7	동국대	4(8)
	서울시립대	4(2)
10	경북대	3(4)

UOS NEWS

교내 소식

2017 신년 인사회



1월 2일 신년 인사회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교수진, 각 부서장들이 지난 한해의 노고를 격려하며 덕담을 나눴다. 원윤희 총장은 "2017년을 과거 10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미래 세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한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평가가 주는 이로운데, 이런 장점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라는 평판을 더하는 학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 서울시립대인의 밤



우리 대학 총동창회 송년 행사인 '서울시립대인의 밤'이 12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원윤희 총장과 권오병(도행 75)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4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모교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발전상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최대현(도공 94, MBC 아나운서) 동문이 사회를 맡았으며, 현도관(도행 80, LH공사 전략사업본부장), 조남호(건축 81, 솔도지빈건축사사무소 대표), 장경덕(경영 85,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동문이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인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기동(경영 82), 나성대(행정 83), 조성제(법학 85), 최상호(도공 86) 동문과 화학공학과 총동문회(회장 임현식), ROTC 총동문회(회장 박종구), 미주동문회(회장 이철호)에는 공로상이, 정대제(환경 74) 전총동창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박원순 시장 초청, 소통간담회



11월 9일, 자작마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리 대학 학생이 함께하는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원윤희 총장과 박원순 시장, 김현성 학생처장, 신호인 총학생회장, 이정민 언론협회의회장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석하여 등록금과 예산 지원, 청년들의 주거문제, 학과 신설, 대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질의를 나눴다. 박 시장은 "오늘 간담회 행사에 잘 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날카롭고, 진지함이 배어있는 품격 있는 질문과 현 시국에 대한 걱정에도 감사한다."며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좋은 생각을 꿈꾸고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기공식



우리 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관 기공식이 10월 6일 개최됐다.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유태승 총동창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곧 다가오는 우리 대학 100주년을 축하했다. 시민문화교육관은 음악관과 체육관이 있던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782㎡ 규모로 축조되며, '18년 4월 말 준공된다. 우리 대학은 2018년 개교 100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지식·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기념관의 명칭을 '시민문화교육관'으로 정한 바 있다. 원 총장은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은 그 이름처럼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지닌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UOS NEWS

교내 소식

신축 음악관 개관



음악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음악관 개관식이 9월 6일 열렸다. 음악관은 '14년 10월부터 19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6년 5월에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815㎡ 규모로, 개인 레슨실 28실, 강의실 4실 등을 갖추으로써 음악학과 학생들의 부족했던 공간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시설을 구비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신축 음악관은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300석 규모의 'UOS 아트홀'을 갖추고 있으며, 이 객석은 100% 동문과 교직원들의 기부로 완성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UOS 아트홀'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장의 역할 담당하며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제52회 환경원예전 개최



'제52회 환경원예전'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시회에서는 환경원예학과 학생들이 봄부터 정성들여 키운 대국과 분재 등 국화작품 778점과 실내원예장식 16점, 화훼공간장식 등을 선보였다. 이 작품들은 최저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전시회 중 판매되었으며, 환경원예전 국화 판매 수익금은 발전기금인 '환경원예학과일동 장학금'으로 기부되어 환경원예학과 학생들을 위해 지급된다. 올해에도 환경원예전 기간 동안 '환경원예전 부문 장학금'과 '환경원예학과 동문 부문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약 4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2016 UOS START-UP DAY



2016년 연말 창업 행사인 'UOS START-UP DAY'가 12월 29일 자연과학관과 21세기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특강, 우수 학생 창업 사례 발표,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와와의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창업경진대회는 총상금 규모가 600만 원에 이르는 행사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 팀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창업 특강에는 명승은 (주)벤처스퀘어 대표와 싸이월드 창립멤버인 이정태 디지털토네이도 대표가 초청되어 <2016 스타트업 10대 뉴스 & 스타트업이 주목할만한 2017 트렌드 16>, <준비된 창업, 그리고 청년 창업의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맡았으며, 우리 대학 창업동아리 Juice 팀의 대표 김준호(경영 석사과정)와 Grey&Partners 대표 장재봉(조경 4년), 념작 대표 박동녕(전전컴 4년), 코디래빗 대표 '신동훈(경영 4년)' 학생이 각각의 창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 ACE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캠프

창업교육센터에서는 11월 25일, 26일 양일간 동양인재개발원에서 '2016 ACE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창업 교육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창업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팀빌딩, 청년 창업가 특강, 실습형 창업교육(비즈니스 캔버스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집중 멘토링), 모의투자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모의투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6팀에게 포상금을 수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대학생 도시영화제 개최

대학생 다큐멘터리 영화제 행사인 도시영화제가 11월 2일부터 3일간 롯데시네마 청량리점에서 열렸다. 'Human in the City'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공모 절차를 통과한 영상을 상영하는 경쟁부문과 우수 다큐멘터리를 초청·상영하는 비경쟁부문으로 펼쳐졌다. 국내 및 해외 초청작 부문, 도시 인문학 부문, 다큐멘터리 단편 등 모두 33편 작품이 롯데시네마 청량리점 1~3관에서 무료로 상영됐다.

UOS NEWS

교내 소식

제9기 동계 라오스 해외봉사단 발대식



1월 4일 학생회관에서 동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우리 대학은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김현성 해외봉사단장을 비롯한 직원과 학생 총 31명을 라오스로 파견한다. 봉사단은 라오스 방비엤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 보건 교육, 태권도, 미술 및 과학 등의 교육봉사는 물론 현지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현지 문화 교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랑과 나눔, 김장 봉사

'사랑과 나눔' 김장 나눔 봉사활동이 11월 25일 전농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강병호 동대문구 부구청장, 신호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재학생 등 170여 명이 참석해 5,000kg의 김치를 만들었다. 이날 담긴 김치는 우리 대학 인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 어르신, 한 부모 및 장애인 세대 등 총 500세대에 전달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랑과 나눔 봉사활동은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에 사랑과 나눔을 실현하고자 교내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노숙인 희망 옷 전달식

12월 29일 노숙인을 위한 희망 옷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원윤희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총 684점의 물품을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했다. 우리 대학은 노숙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13년부터 교직원 봉사동호회비 및 학교 예산으로 기부 물품(내의)을 지원해 왔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처음으로 <2016 노숙인을 위한 희망 옷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여 기부받은 물품을 전달했다.

2015학년도 후기 졸업식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2일 대강당에서 열렸다. 원윤희 총장과 교수진,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대제 동창회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가족 친지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 677명, 석사 354명, 박사 34명 등 총 1,06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한, 졸업 당시 취업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본인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졸업생을 위한 '리마인드 졸업식'이 마련되어 24명이 참석했다. 해당 졸업생들은 30년 전 혹은 10여 년 전 그때처럼 학위복을 입고 졸업식장에 참석하여 학위증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가족과 후배들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휴먼라이브러리, <교수님과 나누는 진짜 진로 이야기 II> 개최

학생과에서는 이번 겨울 방학기간 동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사람책이 되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휴먼라이브러리 <교수님과 나누는 진짜 진로 이야기 II>를 개최한다. 경영학부 신동우 교수의 '살아있는 마케팅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회복지학과(김주영 교수), 국사학과(염복규 교수) 등 12개 학(부)과의 사람책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17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14:00~16:00 제1공학관 브레인스토밍룸 1에서 진행되며, 1월 17일(화)까지 서울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seoulhumanlibrary.org)나 모바일, 전화(문의: 6490-6247~9)로 신청할 수 있다.

2016 서울도시포럼 개최



도시과학대학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12월 13, 14일 양일간 '도시의 정의와 불평등'을 주제로 <2016 서울도시포럼>을 개최했다. 정의도시(The Just City)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대 수잔 파인스타인(Susan Fainstein) 명예교수를 초청, 도시 정의에 대한 특별 강연으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서베이를 통해 분야별 불평등의 실태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으며, 도시와 불평등을 의제로 대한국도시계획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도시인문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전문가 세션이 열렸다. 서순탁 도시과학대학장은 "세계의 도시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여러 영역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국제적인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인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를 도시적 맥락에서 화두를 던지고 담론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UOS NEWS

교내 소식

서울시립대-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업무협약



12월 28일 우리 대학은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와 마곡지구 산학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마곡산업단지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자문 적극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위탁교육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우수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취·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입주기업과 서울시립대 간의 공동기술 개발 및 이를 위한 과제 발굴' 등 기타 산학연 협동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 및 재정분야 업무협약



10월 25일 우리 대학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과 조세 및 재정분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 연구인력 등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지원', '우수인재 육성 및 활용을 위한 공동 협력', '조세재정연구원 직원과 서울시립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대학은 1983년 전국 4년제 대학 최초로 세무학과를 설치했고, 2000년 최초로 세무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세무분야 최고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부설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소를 통해 조세제도의 개선과 세무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업무협약



우리 대학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ICT 및 SW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9월 9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ICT 및 SW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 구축 및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CT: ICT역량지수평가)의 고도화와 활용을 통해 ICT/SW 산업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원유희 총장,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원 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ICT(정보통신기술) 및 SW(소프트웨어) 사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창업터, '사업화지원 전국 심사'에 8개 팀 선정

우리 대학 스마트창업터에서 출전한 8개 팀 모두가 창업진흥원의 스마트창업터 사업화지원 전국 심사에서 사업화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 대학은 올 5월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30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린 스타트업 교육을 실시하고 24개의 사업모델검증팀을 선발·운영했으며, 자체 최종발표회를 통해 8개 팀을 전국 심사에 추천했다. 이들은 10월 31일 킥오프미팅을 통해 협약을 맺고 팀당 3,000~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3개 팀에는 창업화 기간 동안 개별 보육공간(최소 10㎡ 이상)이 무상 지원됐다. 한편 우리 대학은 창업세미나실(제1공학관 208, 209호)과 UOS START-UP(제1공학관 219호, 7실)을 창업활동 공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공간은 '대학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강의실 사용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 창업동아리,

한·중 글로벌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서 수상

창업동아리 Juice 팀(대표 김준호, 경영학과 석사과정)과 코디래빗(대표 이성식, 경영 4년)이 '한중 글로벌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Juice 팀은 3등 상을, 코디래빗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국 북경대학교 중관신원(中关村)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한국 9개 대학, 3개 고등학교 15개 팀과 중국 한중대학생 창업연맹 소속대학 4개 대학 9개 팀이 참가했다.

UOS NEWS

교내 소식

건축학부 학생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금상



건축학부 김광재·박민아(건축학전공 5년) 학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최한 '제20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LH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행복주택 예정지에 'RE:HAPPINESS(대학생이 살고 싶은 행복주택)'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김광재·박민아 학생은 작품명 '다르게 채우다'를 출품, 삼각형 대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 주변 여건과 조화 되도록 해결했으며 보행로, 골목길, 그리고 열린 중정과 입주민을 위한 정원을 입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울시립대 민중시대 팀, 수도권 대학생 통일토론회 1등

9월 26일 개최된 '제2회 수도권 대학생 통일토론회' 결승전에서 우리 대학 민중시대 팀이 1등에 해당하는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신호인(공간정보공학과 4년), 우승희(경영학부 3년), 이동일(행정학과 4년), 김덕현(행정학과 3년), 유덕용(세무학과 4년)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10월 17일 예선을 거쳐 올라온 통일지성팀(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고려대·중앙대·숙명여대 연합)과 토론을 벌인 결과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두 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강경책이나 회유책이냐'를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팀,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청장상

우리 대학 로스쿨 팀(박용찬·구형준·장지현 씨)이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예선대회에 지원한 총 40팀 중 준비서면 심사를 통과한 24팀이 '슬라이드 커버 기능이 있는 카드 수납형 모바일기기'에 관한 특허발명 등을 주제로 본선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했으며, 로스쿨협의회가 후원했다.

세무학과 김준혁 학생, 관세평가 경진대회 최우수상

김준혁(세무학과 3년) 학생이 '제14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세관직원의 품목분류,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총 333명이 참가했다.

김창호 동문, 강가푸르나 남벽 '코리안웨이' 신루트 개척



김창호(경영 88) 대장이 네팔 히말라야의 강가푸르나(해발 7,455m) 남벽 직 등 루트를 새로 개척, 코리안 웨이(Korean-Way)로 명명했다. 김 대장은 이번 원정 등반의 성과로 11월 4일 아시아 황금피켈상을 수상했다. 강가푸르나는 1965년 독일 원정대의 초등 이후 현재까지 5루트만 만들어졌으며, 지난해까지 24팀이 시도해 8팀만이 등정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곳이다. 김창호 대장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대원들의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과 탐험에 대한 열정, 끈끈한 팀워크로 최선을 다해 강가푸르나에 코리안 웨이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인 등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포츠과학과 김현정 연구원,

대한스포츠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 연재상

스포츠과학과 혈관건강연구실 김현정 연구원(스포츠과학과 석사과정 졸업생, 지도교수 제세영)이 10월 23일 열린 2016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제50차 추계 학술대회에서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의 심폐체력과 신체활동 그리고 좌식생활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 연재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운동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 대학 스포츠 과학과 제세영 교수와 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호 교수가 연구에 함께 참여했다. 스포츠과학과 혈관건강연구실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선천성 심질환자들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걸클리닉센터 법률상담실, 무료법률상담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법률상담실에서 지난해와 같이 올 겨울방학 기간 동안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라도 상담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은 1월 9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법률상담실(법학관 6층)에서 진행되며, 1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화(6490-5077)로 예약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실 홈페이지(legallaid.uos.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UOS NEWS

교수 동정

김용한 교수, 방송미디어공학회장에 선임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김용한 교수가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제14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랜셀러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차세대방송표준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박인규 교수, 촛불집회 참가자 수에 대한 물리학적 접근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 참가자 수와 관련해 주최측과 경찰의 추산이 왜 크게 다른지에 대한 장문의 과학적인 설명글을 올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박 교수는 물리학에 알고리즘 코딩을 더해 지난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과학적으로 추산해냈다. 그는 반나절 작업을 통해 직접 촛불 개수를 세는 코드인 'CandleCounter.C'를 짰다고 설명했다. 박인규 교수는 고려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파리 11대학에서 유학한 이후 CERN(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과 예일대, 로체스터대 등에서 근무했다.

서순탁 교수, 한국도시행정학회장에 선출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가 신임 한국도시행정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서 교수를 제12대 학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송오성 교수,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장관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송오성 교수가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산학연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등 산학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교수는 서울시 특성화사업인 주얼리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을 통해 30여 개의 지적권을 확보하는 등 사업성과를 도출했다. 산학연협력사업 과제책임자로서 현재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다수의 과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송인호 교수, 서울역사박물관장 임명

건축학부 송인호 교수가 8월 12일 서울역사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서울시는 신임 송 관장이 서울의 역사도시건축, 한옥, 문화재 등 분야의 높은 식견을 갖췄고, 서울학연구소장을 이끌어 온 '서울학' 전문가로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지키며 역사박물관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신화권 교수,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 발간

국사학과 신화권 교수가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북촌)'를 발간했다. 저자는 한양 도성의 역사와 스토리, 숨은 가치, 고고학자로서 지닌 발굴 경험과 복원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담아냈다. 내년 한양 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국내외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반가운 책이다. 신 교수는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을 역임, 서울 도성 전문가로 백제 왕성인 위례성(풍납토성)을 처음 파고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광화문 복원을 주도했으며 불타버린 송례문 발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염복규 교수,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신간 발행

국사학과 염복규 교수의 신간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데아)이 발행됐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본제국이 만들려 했던 경성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서울의 기원을 재조명하고 해방 이후 우리가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현대 서울로 변화해왔는지를 담고 있다. 염 교수는 1910~1945년 일제 강점기의 신문 기사와 도시계획, 각종 구획정리 평면도 등을 제시하며 현재 서울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다.

안도열 석좌교수, 2016 일리노이대 전기·컴퓨터공학 최우수 동문상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안도열 석좌교수가 반도체 양자 우물 레이저 및 양자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일리노이대(UIUC) 전기·컴퓨터공학 최우수 동문상(2016 UIUC ECE Distinguished Alumni Award)을 받았다. 안 교수는 미래핵심 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자로 2005년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최상위 0.1% 안에 포함되는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으며, 2009년 미국물리학회(APS) 석학회원으로도 추대된 바 있다.

윤창현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입이사 임명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입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12월까지 3년이다. 공단 측은 "신임 이사들은 법률·금융·연륜 분야 전문가들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단 이사진은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최진희 교수, 톰슨로이터 선정 세계 상위 1% 연구자

환경공학부 최진희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발됐다. 톰슨로이터는 200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년간 작성된 전 세계 과학·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논문을 조사해 피인용 횟수 상위 1% 연구자 3,000여 명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하는데 이 중 한국의 과학자는 26명이다. 또한, 최진희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선정한 제1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공학 부문 수상자로 안전한 나노 소재 개발을 위한 나노 세이프 설계(SbD, Safe-by-Design) 연구와 멀티오믹스(Multi-OMICS) 기반 나노독성 정밀 예측 연구로, 지속가능한 나노산업 구축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노 SbD는 나노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노소재의 위해성을 고려해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설계한다는 개념으로써 경제성·효용성 위주의 현재 나노연구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지속가능한 나노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이다.

UOS NEWS

교수 동정

보직

- '17 1.1 김소라 생활관장
- 김정아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주임교수
- 김현주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글로벌건설학과 주임교수
- 전병욱 경정대학 세무학과장 및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 정병준 산업기술연구소 학술연구부장
- 배영수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 '16 12.1 권석우 자유융합대학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장
- '16 11.28 목정수 국제교육원 한국학교육센터장
- '16 10.14 최윤수 도시과학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 주임교수
- '16 9.1 강동화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책임교수
- 김명숙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상담전공 주임교수
- 김정빈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과장, 대학원 도시공학과 주임교수 및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주임교수
- 김정아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및 자연과학연구소 기획학술부장
- 노재동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장 및 대학원 물리학과 주임교수
- 서유미 산업경영연구소 사회적기업과CSV경영연구센터장
- 성중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및 법학연구소 도시와법센터장
- 신동우 산업경영연구소 연구기획조사센터장 및 산업경영연구소 행동과학연구센터장
- 신윤정 교직과정 주임교수
- 이동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장 및 대학원 생명과학과 주임교수
- 이상신 세무전문대학원장 및 조세재정연구소장
- 이영한 세무전문대학원 계약학과 주임교수
- 이춘우 산업경영연구소 기업가정신과벤처연구센터장
- 양재환 산업경영연구소 미래신성장산업연구센터장
- 임남희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장 및 대학원 음악학과 주임교수
- 임정하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 장석진 전산정보원 부원장
-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
- 정영수 법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센터장
- 조윤희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교양수학실 주임교수
- 홍수민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장 및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 '16 8.22 이윤석 국제교육원 한국학교육센터장
- '16 8.12 이익주 서울학연구소장

UOS NEWS

글로벌 소식

미국 서부지역 동문회 참석 및 중남미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우리 대학 원윤희 총장과 강명구 국제교육원장이 '17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멕시코, 페루를 방문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원 총장은 미주지역 동문회에 참석하여 미국 진출 동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멕시코주자치대학 및 페루 리마 소재 산이그나시오데로올라대학을 방문하여 학술 및 학생교환에 관한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육 환경을 시찰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인턴십 업무협약체결



10월 24일 우리 대학은 본교 학생들의 글로벌한 안목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글로벌무역인턴십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내년 1학기 글로벌무역인턴십에 참가할 학생 5명을 선발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17년 3월부터 외국 주재 한국 기업체에서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한다.

2016년 유럽국제교육자협회(EAIE) 참가

우리 대학은 전 세계 대학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유럽국제교육자협회(EAIE: Europ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에 참가했다. 나흘간 고등교육 관련기관의 홍보부스가 운영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각국의 우수 대학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갖고 앞으로의 교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EAIE에서 스페인 University of Almeria, 프랑스 EPITA 등 추가 협정 및 갱신협정에 관한 논의를 가졌으며, 네덜란드 Tio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헝가리 University of Pecs 등과 신규 교류를 논의하고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규 협정 대학과는 '18년 1학기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교과목 개발 특강 개최

국제교육원에서는 재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교과목 개발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12월에는 '국제매너 이해로 비즈니스에서 매력적인 사람 되기', '대학생 아프리카 개발협력 참여 경험 공유'를 주제로 2차례 특강을 열었다. 다음 강의는 1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간기구 전문가가 국제개발협력의 현주소를 소개하여 향후 관심 있는 학생들의 관련 분야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2016-2학기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4명 입학

9월, 우리 대학에 몽골, 네팔, 알제리,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생 4명이 입학했다.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간 수학과 수석하는 기간 동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체 장학금을 지원한다. 우리 대학은 GKS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사업 선정대학으로 2014년부터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을 유치하여 현재 10명 학생이 수학과 있다.

2017학년도 2학기 파견 교환학생 선발 안내

우리 대학은 '17년 1월 중 2017학년도 2학기 해외 교류대학으로 파견될 교환학생 250여 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소재 130여 개교에 파견된다. 1월 16일부터 3일간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에서 지원 서류를 작성한 후 출력물을 국제교육원에 제출해야 하며 1월 23일, 24일 양일간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이 실시된 후 파견 대학 배정 절차를 거쳐 1월 26일 최종 합격을 공고할 예정이다.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 겨울방학 해외어학연수단 20명 파견

우리 대학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에서 어학연수를 수행할 교환학생 20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1월 해당 대학에 파견되어 약 한 달 간 현지영어실습 과목을 수강하며 캐나다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2017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142명 파견

국제교육원은 2017학년도 1학기 북미, 유럽, 중화권, 일본 등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12월 1일 최종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파견 전 제출 서류 안내, 파견 중 유의사항, 파견 후 학점이전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2016학년도 2학기에는 총 183명이 파견됐으며, 학생들은 해당 대학에서 최소 1학기에서 최대 1년까지 수학한다.

2017년 1학기 글로벌인턴십 9명 파견

우리 대학은 내년 1학기 뉴욕에서 진행되는 글로벌인턴십에 참가할 9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뉴욕 라파디아 대학 내 여러 부서에서 2017년 3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안내

'17년 2월 28일 2017학년도 1학기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릴 예정이다. 2017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교환학생은 160명으로 총 28개국 80개교에서 우리 대학을 찾았다. 2016학년도 2학기에는 총 26개국 73개교 165명의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등록했다.

2017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 61명 합격

2017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학부 및 일반대학원)에 학부생 25명, 일반대학원생 36명으로 총 61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17년 2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치게 되며 3월부터 본교에서 수학하게 된다.

2016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회 활동

외국인 유학생회에서는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환영회 이후 10월 난지캠핑장 문화체험, 11월 '제1회 외국인 유학생 도전! 골든벨' 등을 개최하며 학생들의 교내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유학생들 간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메이트(SeoulMate) 11기 모집

국제교육원에서는 12월부터 1월까지 2017학년도 1학기에 활동할 '서울메이트' 43명을 선발한다. '서울메이트'는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한국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그룹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다음 학기 동안 외국인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다양한 교류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어학당 겨울학기 개강

한국어학당은 12월부터 2월까지 2016년 겨울학기 정규과정을 운영, 22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여한다. 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겨울 1주 단과과정)을 진행, 일본, 대만 등에서 총 11명의 외국인이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에 참가할 예정이다. 2008년도에 처음 문을 연 우리 대학 한국어학당에는 올 가을학기 총 19개국 232명(신입생 103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외방 방문

국가	대학/기관명	방문 목적	방문 일자
일본	Gakushuin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08. 09
미국	Wayne State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08. 24
일본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09. 12
일본	Prefectural University of Hiroshima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09. 20
미국	Mercer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09. 23
영국	Robert Gordon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09. 27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	어학연수 프로그램 논의	2016. 10. 07
일본	JASSO(문부과학성 장학 프로그램)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10. 13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 논의	2016. 10. 17
프랑스	University of Caen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 논의	2016. 10. 19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10. 27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	어학연수 프로그램 논의	2016. 11. 07
중국	Sun Yat Sen University, Zhuhai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12. 05
중국	Beijing Union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12. 12
태국	Naresuan University	상호 교류 협력 논의	2016. 12. 12

DONATION NEWS

시대와 함께하다



1.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3천만 원 기부 2. 조성제 동문, 시대천사 2천만 원 기부
3. 박병수 동문, 2천만 원 기부 4. 문준필·우지훈 동문, 장학금 1천만 원 기부 5. 정관섭 동문, 시대천사 1천만 원 기부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3천만 원 기부

화학공학과 총동문회에서 10월 21일 학교 발전기금 총 3천만 원을 기부했다. 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기금 2천만 원, 화학공학과 지정기금으로 1천만 원이 사용된다. 화학공학과 총동문회는 10월 29일,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화학공학과 40주년 기념행사 <2016 화공인의 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제성호 동문, 3천만 원 기부

제성호(토목 77) 동문이 강촌수련원 건립기금 기부에 이어 11월 29일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토목공학과 장학금(5백만 원)과 학군단 ROTC 장학금(5백만 원), 일반 발전기금(2천만 원)으로 전달된다.

박병수 동문, 2천만 원 기부

박병수(조경 79) 동문이 9월 19일 ROTC 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을, 12월 1일 시대천사(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기금)1천만 원을 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강촌수련원 기부, 음악관 객석기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온 박 동문은 곧 다가올 2018,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천사 클럽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성제 동문, 시대천사 2천만 원 기부

조성제(법학 85) 동문이 시대천사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2천만 원을 쾌척했다. 조 동문은 ㈜에몬스가구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14년부터 매년 시대천사 1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에도 모교에 대한 애정으로 기금을 후원했다. 11월 15일 원윤희 총장은 ㈜에몬스가구를 방문하고 조성제 동문을 만나 기금을 전달받았다.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 장학금 1천만 원 기부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현창택 건축학부 교수)에서 8월 18일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건축학부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에서는 2013년 7천만 원, 2014년 7십7만 원을 약정·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8천7십7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문준필·우지훈 동문, 장학금 1천만 원 기부

문준필(세무전문 14), 우지훈(세무 04) 동문이 8월 11일 장학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가계교관 학우 대상 세무학과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9월 9일 모교를 방문한 두 동문은 학창시절 본교에서 수학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화학공학과 교수 일동, 1천만 원 기부·약정

화학공학과가 40주년을 맞이하여 화학공학과 교수 10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100년과 화학공학과 무궁을 발전을 기원하며 10월 29일 <2016 화공인의 밤>에서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약정했다.

정관섭 동문, 시대천사 1천만 원 기부

모교 1회 졸업생인 정관섭(원예 54) 동문이 11월 8일 시대천사 클럽에 가입,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 기금은 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정관섭 동문은 그동안 강촌수련원 건립 및 지원기금에도 참여해왔다.

이용범 명예교수, 1천만 원 기부

환경원예학과 이용범 명예교수가 11월 30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용범 명예교수는 제자사랑장학금과 일반 발전기금 등을 꾸준히 기부하며 학교와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DONATION STORY

INTERVIEW

42.195km로부터 배우는 인생

박병수 동문(조경 79)
알토지앤엠 대표이사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려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육상 영웅 에밀 자토펙(Emil Zatopek)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종종 우리네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된다. 박병수 동문 역시 마라톤은 인생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아니 인생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턱말까지 숨이 차올라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을 때, 그때가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닌 한 번 더 내달려야 하는 순간임을 마라톤은 가르쳐주었다.

군인을 꿈꾸던 소년, 인생을 알아가다

비전이 좋다는 주위의 추천으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택한 ROTC 장기 복무.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마음에 품었던 ‘장군’이란 꿈이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그나마 학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더 컸다. 그렇게 학비를 지원받으며 학생생활과 군 복무를 병행했다.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결국 가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다시 꿈을 접고 사회로 뛰어들었다.

1988년 전역 후 박병수 동문이 사회생활의 첫발을 뗀 곳은 현대자동차, 어느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였다. ‘성실과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대로 착실하게 적응해 나가던 중 유리시공회사와 인연이 되어 공사 현장에 참여하게 됐고, 그것이 박병수 동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전공인 조경은 아니지만, 이후 10년 동안 유리 업계에서 근무하며 유리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게 자동차가 아닌, 유리 전문가로서 영업 전선을 뛰어다녔고 자연스럽게 종합건설 회사와도 인연을 맺게 된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알토지앤엠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박병수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알토지앤엠은 유리 전문회사로 출발했지만 3년 전부터 PVC창호까지 담당하며 전문 건설회사로 성장했고, 현재는 KCC로부터 원자재를 조달, 창호(유리, PVC) 현장 시공까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박병수 동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도전했던 공사 현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1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라톤에서 깨달은 용기

아기는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사람이란 이렇게 크든 작든 상처를 겪고 난 뒤 더욱 단단해지기 마련. 박병수 동문에게도 너무 빨리 찾아온 시련은 분명 큰 부침이 었지만, 더 굳건하게 일어서는 계기이기도 했다. 박병수 동문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까지 가족과 지인들의 무한한 지지 그리고 ‘마라톤’이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2003년 다이어트를 할 요량으로 조깅을 시작했고, 매일 2~3km씩 달렸습니다. 학창시절 축구 동아리 활동에 폭 빠졌던 이후로 무언가에 몰입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조깅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고, 온라인에서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개인 훈련을 거듭한 끝에 달리기를 시작한 지 넉 달째에는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건강을 찾기 위해 시작한 마라톤인데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요. 보스턴마라톤(2009), 도쿄마라톤(2010), 베를린마라톤(2011)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앞으로 시카고마라톤, 런던마라톤, 뉴욕마라톤까지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를 모두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베를린마라톤 대회는 박병수 동문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 첫 마라톤 풀코스 완주 때부터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둔 그가 개인 통산 100회 완주를 이루어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회를 넘어서도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인터뷰를 하는 이날까지 박병수 동문은 총 160회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을 세웠다.

“사업을 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말고 내 능력 안에서 차곡차곡 행운을 받아들이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제 올지 모를 그 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모습이 마라톤과 너무 닮아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곧잘 우리네 인생에 비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때가 한 걸음 더 내달릴 때

박병수 동문이 말하는 마라톤의 가장 큰 매력은 ‘생각의 시간이 주어지는 스포츠’라는 것이다. 알토지앤엠이 여러 언론에 건설한 중소기업으로 크게 주목받는 것도 위기의 순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가며 기업을 이끌었던 박병수 동문의 마라톤 경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가 지나고 더 탄탄히 성장한 박병수 동문은 주저하지 않고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2014년 강촌수련원 지정 기부, 2015년 음악관 객석기부, 2016년 ROTC장학회 장학금 기부뿐만 아니라 100주년 기념관 건립 기금도 이미 1천만 원을 기부했고, 2017년 추가기부를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립대 ROTC 총동문회 장학회장을 역임 중이지만, 그는 우리 대학 기부뿐만 아니라 국제로타리클럽을 통한 지역 기부 활동에도 나서고 있고, 자신이 졸업한 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겸 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기부’ 활동 중에서도 특히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후학들을 위한 장학회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박병수 동문 또한 어린 시절을 넉넉지 않게 보냈기 때문이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35km 지점쯤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체력에 한계가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지죠. 하지만 그 순간을 조금만 지나면 완주하는 보람 있는 결과를 맞출 수 있습니다. 후배들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완주의 순간을 꼭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그게 마라톤이든 우리네 인생이든 말이지요.”

자신의 조건 없는 ‘기부’ 활동이 어려운 후배들의 인생 완주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42.195km를 완주 중인 박병수 동문. 그로부터 인생의 호흡을 배운다.

THANKS TO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행복한 마음 나눔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학생들이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특별한 이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인 기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의 인재들에게 전한 따뜻한 마음은 희망과 용기가 되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장학금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된 학생들의 감사 메시지를 만나보자.



강성진 — 행정학과 1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희망했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게 좋은 뜻을 전달해주신 서울도시철도공사 계약학과 분들과 김종경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또한 열심히 살며 바른 청년으로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두 — 경제학부 1년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주신 정제철 교수님이 우리 대학 명예교수님이신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된 적은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1학년인 만큼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MESSAGE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지혜 — 경영학부 3년

재학생을 위해 힘써주시는 기관, 학부모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덕분에 여러 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버린 마음에 온기가 더해지고 자극이 됩니다. 이 장학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감사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또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는 장학재단과 사회공헌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박동성 — 행정학과 3년

행정학과 총동문회에서 수여한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정된 저를 포함한 학우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하며 가끔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으나 항상 동문 선배님들, 동기 여러분, 후배님들께서 제 곁을 지켜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선배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온 우연이 아닌 필연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100년 역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학우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의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지인 — 세무학과 4년

저는 임경표 선배님의 성함으로 새겨진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장학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학교생활과 취업준비 등으로 바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니 저도 선배님처럼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등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배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후배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DONATION LIST

시대와 함께하다

발전기금 약정명단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

약정기간 : 2016. 7. 1~2016. 12. 31 / 발전기금 누계액 : 25,228,378 천 원 (단위: 원)

관계	성명	약정액	소속	비고
약정액 1억 원 이상				
기타	산학협력단	151,939,000		
약정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문	재성호	30,000,000	(주)씨엠엔텍	
동문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30,000,000		
교수	이훈우	25,000,000	경영학부	
동문	박병수	20,000,000	(주)알토지엔엠	조경79
동문	조성재	20,000,000	(주)에몬스가구	법85
교수	정희원	15,692,000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이양숙	14,736,000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곽노완	13,780,000	도시인문학연구소	
기타	사단법인 점프	12,500,000		
기타	국제교류과	12,252,600		
교수	홍용진	11,112,000	도시인문학연구소	
동문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	10,000,000		
동문	문준필/우지훈	10,000,000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세무전문14/세무04
교수	이용범	10,000,000		
동문	이용훈	10,000,000	(주)그림이십일	조경75
동문	이정화	10,000,000	서울시청	토목81
동문	정관섭	10,000,000		
교수	화학공학과 교수일동	10,000,000		
약정액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교수	이현재	8,350,000	도시인문학연구소	
동문	홍보대사 이루미	7,500,000		
기타	삼성물산(주)패션부문	5,866,250		
동문	박종언	5,000,000	에이원손해사(주)	
교수	정해숙	5,000,000	사회복지학과	
기타	(주)에스엔피미디어허브코리아	5,000,000		
동문	(주)정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5,000,000		
기타	(주)파워프라자	4,700,000		
기타	(주)플랜트프로덕션	4,200,000		
기타	에스엔취엔터테인먼트	3,700,000		
동문	나무그늘키우기	3,675,000		조경학과 장학회
기타	(주)제이에스픽처스	3,650,000		
기타	신한카드주식회사	3,001,515		
기타	KT&G 상상펀드 기금운영위원회	3,000,000		
동문	이우람	3,000,000	우람세무회계사무소	세무95
교수	이재영	3,000,000	환경공학부	
교수	이충기	3,000,000	건축학부	
기타	재단법인 국토정책연구원	3,000,000		
기타	현대카드주식회사	2,889,079		
기타	익명 학부모	2,701,000		
기타	(주)레드햇컨텐츠	2,500,000		
기타	한국물리학회	2,500,000	한국물리학회	
기타	신한카드	2,178,574		
기타	삼성카드주식회사	2,100,000		
기타	(주)문화방송	2,040,000		
교수	무기명	2,000,000	환경공학부	
동문	유남중	2,000,000		
기타	(주)스페이스몬스터컨텐츠	2,000,000		
기타	(주)영준이형	2,000,000		
동문	(주)지승건설엔트	2,000,000		
동문	김형기	1,500,000		회공88
동문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1,500,000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교수	최성모	1,500,000	건축학부	

관계	성명	약정액	소속	비고
기타	sm c&c	1,300,000		
기타	드림이엔엠	1,200,000		
동문	환경원예학과 일동	1,120,000		
기타	고려씨씨씨	1,000,000		
교수	금지덕	1,000,000	행정학과	
교수	김하원	1,000,000	생명과학과	
교수	송오성	1,000,000	신소재공학과	
교수	안성제	1,000,000	경영학부	
교수	오유성	1,000,000	스포츠학과	
동문	오윤경	1,000,000	엘로스핀미디어	원예92
교수	유병덕	1,000,000	물리학과	
동문	이강호	1,000,000		
동문	이병우	1,000,000	(주)에네스지	
동문	이은희	1,000,000		문화예술 석사15
기타	하나금융투자(주)	1,000,000		
교수	황선환	1,000,000	스포츠학과	
약정액 1백만 원 미만				
기타	(주)오아시스프로덕션	840,000		
기타	한국방송공사(KBS)	840,000		
동문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	750,000		
동문	(주)매터스인류크	700,000		
동문	박태일	600,000	한국거래소	경영83
동문	임종춘	600,000		세무89
교수	강인혜	500,000	기계정보공학과	
교수	김대환	500,000	법학전문대학원	
직원	김민석	500,000	기획과	
동문	김상민	500,000		사복99
직원	김선영	500,000	기획과	
동문	김영옥	500,000	법무법인 지후	법95
동문	김하나	500,000		도행05
교수	김현성	500,000	행정학과	
기타	무기명	500,000		
동문	박종춘	500,000		무역79
동문	박종휘	500,000	(주)진명스텝스	경영03
직원	백인호	500,000	기획과	
교수	서순탁	500,000	도시행정학과	도행80
교수	성한경	500,000	경제학부	
동문	세무전문대학원 15기	500,000		
교수	이수범	500,000	교통공학과	
교수	이종원	500,000	철학과	
직원	이희경	500,000	기획과	
교수	장광필	500,000	경영학부	
동문	장현식	500,000	(주)대성하이테크	경제82
동문	채문식	500,000	ING생명	경영06
동문	김두현	300,000		
동문	성기원	300,000		수의57
동문	장장운	300,000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14
직원	이경인	200,000	공과대학	
직원	이상혁	150,000	건축학부동문회	
기타	무기명	100,000		
기타	송가어패럴	100,000		
동문	이미경	100,000	렉시오코리아	
기타	(주)유크테크놀러지	100,000		
기타	나눔미용장(개쉬백)	74,544		
동문	이경영	50,000		문화예술15
동문	박희영	30,000		환경원예95
합계		571,317,562		

DONATION CAMPAIGN

시대를 사랑하다

시대천사 클럽 가입하기

'시대천사 클럽'은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대학 발전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1,004명의 잠재 기부자를 발굴하여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중 100억 원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2013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1구좌를 개설하면 1,0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천사 클럽' 회원의 이름(개인 및 단체)은 100주년 기념관의 특별한 공간에 동판으로 새겨 길이 보전될 계획입니다.



참여방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uos.ac.kr>)에서 온라인 약정 또는

약정서 작성 후 메일·팩스 발송 및 방문 약정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CMS)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02-235030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시대천사 클럽에 참여해주신 분들(2013~현재)

총 4,471,700,000원 (단위: 원)

성명	약정금액	성명	약정금액	성명	약정금액
김기동(경영82)	10,000,000	이배규(경영64)	10,000,000	김기동(경영82)	10,000,000
우리은행	3,000,000,000	김기성(도행 박사03)	10,000,000	전지공학과 졸업생 일동(7년 과운영위원 및 86학번)	10,000,000
무기명	300,000,000	김삼화(행정80)	10,000,000	정관섭	10,000,000
정대재(항공74)	100,000,000	김상정(도행84)	10,000,000	정우용(AMP11)	10,000,000
미식축구부 졸업생 동문회	50,000,000	김승진(도시경84)	10,000,000	정지선(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0,000,000
유태승(원예7)	50,000,000	김한용(잡시66)	10,000,000	조성욱(도공91)	10,000,000
원운희(제8대 총장)	40,000,000	도시공학과 총동문회	10,000,000	(주)한전 서울시립대동문회	10,000,000
조성재(법85)	40,000,000	박광복(기계 석사06)	10,000,000	채홍식(건축83)	10,000,000
세무학과 총동문회	30,000,000	박병수(조경79)	10,000,000	천영진(스포츠학과 교수)	10,000,000
환경공학부동문회	30,000,000	박종휘(경영03)	10,000,000	최원식(세무학과 교수)	10,000,000
무기명	20,000,000	법학과 90학번 동기회	10,000,000	한경환(AMP 5기)	10,000,000
(주)B&G리테일	20,000,000	삼성생명 시립대동문회	10,000,000	한형구(국어국문학과 교수)	10,000,000
한상경(원예70)	2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 노조	10,000,000	홍영미(영문80)	10,000,000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2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노조	10,000,000	황인성(경영83)	1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루미	17,500,000	서호근(조경81)	10,000,000	서순탁(도시행정학과 교수)	6,000,000
외환은행 동문회	15,000,000	성보경(경영82)	10,000,000	염경희(국사88)	5,000,000
포스코건설 동문회	14,900,000	수자원공사 동문회	10,000,000	오진표(법학83)	5,000,000
청정생고기(후원의 집 10호)	12,000,000	시연회	10,000,000	정형섭(공간정보공학과 교수)	5,000,000
박내선(회계79)	10,500,000	심미자(명예교수)	10,000,000	홍수민(영어영문학과 교수)	5,000,000
KB 국민은행 동문회	10,000,000	양준열(전산통계87)	10,000,000	조새평(송과정 제10기 수강생 일동)	4,000,000
NH농협 서울시립대동문회	10,000,000	오유성(스포츠학과 교수)	10,000,000	시대인의 나눔터(재무과 교수)	3,000,000
강대권(건축76)	10,000,000	우리은행간동지점	10,000,000	이우람(세무95)	3,000,000
강성욱(농공00)	10,000,000	유환필(도공84)	10,000,000	이재영(환경공학부 교수)	3,000,000
강한규(도행79)	10,000,000	이건(도시사회학과 교수)	10,000,000	박태일(경영83)	2,700,000
이광하(경제81)	10,000,000	이승(토목공학과 교수)	10,000,000	이승철(원예7)	2,000,000
경기남부오일	10,000,000	이동훈(경제81)	10,000,000	김성학(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000
고준환(공간정보학과 교수)	10,000,000	이동훈(환경공학부 교수)	10,000,000	김창국(반도체83)	1,870,000
고형석(건축80)	10,000,000	이배철(토목79)	10,000,000	김종표(도행91)	1,000,000
국회동문회	10,000,000	이보덕(원예 박사06)	10,000,000	이보덕(원예 박사06)	1,000,000
권원오(경영60)	10,000,000	이용훈(조경75)	10,000,000	이용훈(조경75)	1,000,000
기업은행 동문회	10,000,000	이정배(법학88)	10,000,000	오윤경(원예92)	1,000,000
김욱(경영75)	10,000,000	이정배(법학88)	10,000,000	이민주(한공1)	1,000,000
김간수(경제85)	10,000,000	이정화(토목81)	10,000,000	양경식(경영03)	200,000
		이종길(원예64)	10,000,000	박희영(환경원예85)	30,000
		이창욱(무역83)	1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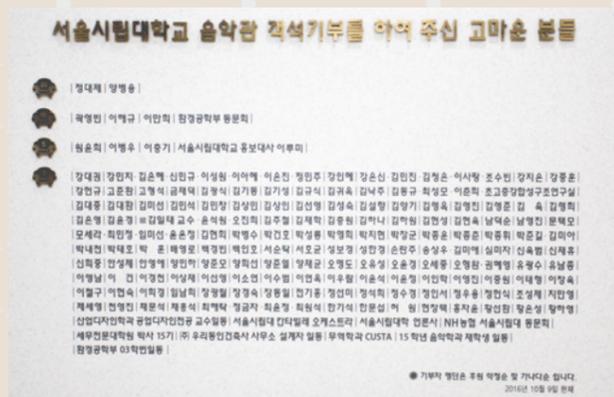
DONATION CAMPAIGN

시대를 기억하다



음악관
객석기부
100% 달성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음악관 객석기부 캠페인>이 성공리에 마감되었습니다.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 등 156명의 개인과 단체가 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담은 음악관 객석기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석 명판에 담긴 기부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음악관 객석기부 기부자의 벽



▲ 음악관 내 객석 명판

각 객석에는 기부자들이 요청한 문구가 새겨졌다. 객석기부 기부자의 이름만 새겨 넣어 달라는 담백한 요구부터 "사랑하는 모교의 문화·예술 분야 도약을 응원합니다.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음악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성공립농업학교 서울시립대 100년을 잇다, Pride of UOS"와 같이 학교 발전에 대한 애정과 염원을 담은 문구 그리고 "첫 월급으로 예술에 기부합니다. 여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No pain, no gain"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문구도 있었다. 오진희 동문(법학 83)과 윤석원 동문(전자 84)은 **故 김일태 교수(도시행정학과)**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며"라고 새겨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음악회

음악관 개관기념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음악회가 11월 30일 열렸다. 바이올린 연주자 김영준 교수와 바리톤 전기홍 교수, 테너 이인학 교수, 작곡 이소연 교수, 피아노 연주자 강지은 임남희 교수 등 음악학과 교수진 전원이 참여하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중 대성당들의 시대, 슈베르트의 '한 대의 피아노와 4개의 손'을 위한 환상곡' 등을 연주했다. 이날 원윤희 총장은 "음악관은 대학 구성원들과 동문들의 학교 발전에 대한 바람이 담긴 뜻깊은 공간"이라며 "이 같은 의미가 담긴 공간에서 좋은 연주회를 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음악관 객석기부에 참여해주신 분들

총 152,000,000원 / 총 304석 (단위: 원)

성명	좌석	약정금액	성명	좌석	약정금액
김영진(음악94)	1석	500,000	오세중(제어계측89)	1석	500,000
정대제(항공74)	30석	15,000,000	이현숙(직원)	1석	500,000
양병용(영문84)	20석	10,000,000	황하영(잠사54)	1석	500,000
곽영빈(조경81)	10석	5,000,000	송상우(세무88)	1석	500,000
이만희(경영84)	10석	5,000,000	김미애(세무91)	1석	500,000
이해규(경영64)	10석	5,000,000	김영희(경영84)	1석	500,000
환경공학부 동문회	10석	5,000,000	신희중(법학90)	1석	500,000
이병우(세무84)	6석	3,000,000	이영남(국사 석사15)	1석	500,000
이충기(건축학부 교수)	6석	3,000,000	박종운(항공82)	1석	500,000
원윤희(제8대 총장)	5석	2,500,000	양준모(항공82)	1석	500,000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루미	5석	2,500,000	양희선(경영16)	1석	500,000
NH농협 서울시립대 동문회	4석	2,000,000	이연옥(직원)	1석	500,000
서호규(조경81)	4석	2,000,000	현창택(건축학부 교수)	1석	500,000
이경천(경제92)	4석	2,000,000	강중훈(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최해태, 정금자, 최윤정, 최원석(세무학과 교수)	4석	2,000,000	심미자(생명과학과 명예교수)	1석	500,000
한기석(경영68)	4석	2,000,000	이선영(건축학부 교수)	1석	500,000
김현욱(환경공학부 교수)	4석	2,000,000	박성룡(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1석	500,000
고형석(건축80)	3석	1,500,000	김상민(사북99)	1석	500,000
김광식(전자공82)	3석	1,500,000	김하나, 위용웅(도행05)	1석	500,000
(우)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일동	3석	1,500,000	채문석(경영06)	1석	500,000
최성모, 이춘희(건축학부 교수)	2석	1,000,000	김영욱(법95)	1석	500,000
김대권(건축76)	2석	1,000,000	산업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전공 교수 일동	1석	500,000
김충원(도행75)	2석	1,000,000	이창욱(무역83)	1석	500,000
문태모(법학91)	2석	1,000,000	서울시립대 칸타빌레 오케스트라	1석	500,000
오영도(기계정보공학과 교수)	2석	1,000,000	성보경(경영82)	1석	500,000
오윤경(환원92)	2석	1,000,000	손란주(직원)	1석	500,000
유광수(신소재공학과 교수)	2석	1,000,000	신욱범(토목74)	1석	500,000
이 건(도시사회학과 교수)	2석	1,000,000	신재휴(스포츠과학과 교수)	1석	500,000
이상재(경제92)	2석	1,000,000	안영애(조경76)	1석	500,000
이우람(세무95)	2석	1,000,000	양민하(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1석	500,000
정우용(AMP 117)	2석	1,000,000	양재균(국사10)	1석	500,000
황은성(생명과학과 교수)	2석	1,000,000	양준열(전산통계87)	1석	500,000
박종휘(경영03)	2석	1,000,000	오진희(법학83)	1석	500,000
오형완, 권해영(회계84)	2석	1,000,000	유남중(항공83)	1석	500,000
강현규(도행79)	2석	1,000,000	윤석원(전자공84)	1석	500,000
환경공학부 03학번 일동	2석	1,000,000	이소연(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조성재(법학85)	2석	1,000,000	이영진(수의68)	1석	500,000
박장균(경영01)	2석	1,000,000	이윤성(음악00)	1석	500,000
김하원(생명과학과 교수)	2석	1,000,000	이인학(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안성재(경영학부 교수)	2석	1,000,000	이철규(사)한국음악협회 수석부이사장	1석	500,000
금재덕(행정학과 교수)	2석	1,000,000	이태형(행정84)	1석	500,000
정현식(경제82)	2석	1,000,000	임남희(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무역학과 CUSTA	1석	500,000	장경숙(직원)	1석	500,000
박종춘(무역79)	1석	500,000	장동일(음악95)	1석	500,000
강은신, 김민진, 김형은, 이사랑, 조수빈	1석	500,000	전기홍(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강지은(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정석희(항공97)	1석	500,000
故 김일태(도시행정학과 교수)	1석	500,000	정선미(수학89)	1석	500,000
고준환(공간정보공학과 교수)	1석	500,000	정수경(법학95)	1석	500,000
김 욱(경영75)	1석	500,000	정인서(음악96)	1석	500,000
김귀옥(행정87)	1석	500,000	제세영(스포츠과학과 교수)	1석	500,000
김규식(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1석	500,000	지만영(제어계측89)	1석	500,000
김기동(경영82)	1석	500,000	채홍식(건축83)	1석	500,000
김기성(환원71)	1석	500,000	천영진(스포츠과학과 교수)	1석	500,000
김낙주(토목77)	1석	500,000	한문섭(물리학과 교수)	1석	500,000
김미선(경제92)	1석	500,000	허 원(수의64)	1석	500,000
김민창(경제93)	1석	500,000	홍자윤(음악98)	1석	500,000
김상인(도행77)	1석	500,000	황선환(스포츠과학과 교수)	1석	500,000
김설환(스포츠과학과 교수)	1석	500,000	15학년 음악학과 재학생 일동	1석	500,000
김성숙(직원)	1석	500,000	김대중(무역89)	1석	500,000
김양기(농업경영61)	1석	500,000	오유성(스포츠과학과 교수)	1석	500,000
김영준(음악학과 교수)	1석	500,000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

2011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Best7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은 동문, 교내 구성원, 기업 등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기부금으로 2010년 10월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객실 이용료(1실 1박 기준): 정원 108명

객실 타입	객실 수	기준 인원	구성원		일반	
			평일	주말, 성수기	평일	주말, 성수기
birch(한실) 47,22㎡	6실	6명	60,000원	70,000원	90,000원	120,000원
Oak(한실) 53,52㎡	6실	8명	70,000원	80,000원	100,000원	130,000원
Oak(양실) 53,53㎡	3실	8명	80,000원	90,000원	110,000원	150,000원

※ 주말: 공휴일 전일, 금요일, 토요일 ※ 성수기: 여름 - 7월, 8월, 겨울 - 12월, 1월, 2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812-39(강촌리 641-4) TEL. (033)262-3155~6

시설 이용료

시설별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세미나실	기본 4시간	200,000원	시간당 5만 원 추가
바비큐 시설	그릴(6~7인용)	15,000원	드럼통, 그릴(숯 포함) 철망, 테이블, 집게, 가위, 장갑 제공
	드럼통(15~20인용)	30,000원	
공동취사장	객실 이용고객	무료	07:00~23:00
체육시설	객실 이용고객	무료	농구공, 족구공, 축구공, 배구공 대여 가능

※ 풀칠하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이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 10. 11 ~ 2017. 10. 10

동대문우체국
승인 40239호

받는 곳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8층 기획처

0 2 5 0 4

* 이곳에 풀칠을 하셔서 잘 붙이신 다음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정보				
성명(기관명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생일	년 월 일 (양/음)
연락처	주소			
	전화(주택/직장)	E-mail		
	휴대폰	직장명/부서/직위		
기부금공제 영수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개인은 발전기금에서 국세청에 등록합니다			
본교관계	<input type="checkbox"/> 동문/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금 약정 정보				
약정액	금 _____ 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납부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납부예정	년 월 은행 납부(예정)			

※자동이체(CMS)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는 하단의 추가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기금 사용 정보	
기금 사용처	일반기금 : - 기부하신 소중한 기부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용도지정 :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5%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일반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5% 이상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기재해 주세요 : %
기부정보 공개 여부	※ 기부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기부(약정)자 명단(홈페이지/책자 등) <input type="checkbox"/> 교내기사(홈페이지/책자 등)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서명:)

추가 입력사항	
자동이체(CMS)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기부자 본인과 다를 경우에만 기재): ※ 이체는 매월 25일 진행되나 이체오류 등 미납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금융결제원에 추가로 이체 요청합니다.
분할납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_____ 원씩 회) <input type="checkbox"/> (서울시립대 교직원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월정액 기부
기금운영	<input type="checkbox"/> 원금은 영구보존하고 이자로 지원(1억 원 이상 가능) <input type="checkbox"/> 원금을 사용하여 지원
입금계좌안내	대학발전기금 : 우리은행 849-023892-13-011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시대천사(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 우리은행 1005-202-235030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시립대와 함께라면(월 1만 원 기부) : 우리은행 1005-002-043164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귀하

절
취
선
✂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동행

시민문화 교육관에 당신의 이름을 남기세요



'시대천사 클럽' 가입하기

'시대천사 클럽'은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중 100억 원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2013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1구좌를 개설하면 1,0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천사 클럽' 회원(개인 및 단체)은 100주년 기념관 특별 공간에 동판으로 이름을 새겨 학교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기부방법

-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uos.ac.kr>)에서 온라인 약정
- 약정서 작성 후 이메일(uosfund@uos.ac.kr)이나 팩스(02-6490-6339)로 송부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202-235030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 CMS 자동이체 방법: 발전기금 약정 시 납부방법을 CMS로 선택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기재 → 월 납부액 기재 → 원하는 기간 동안 자동이체 처리